

중소형주, 언제 회복되나?

정유정 (02)3774-6068 / amouryj@miraeasset.com

대형주 장세 언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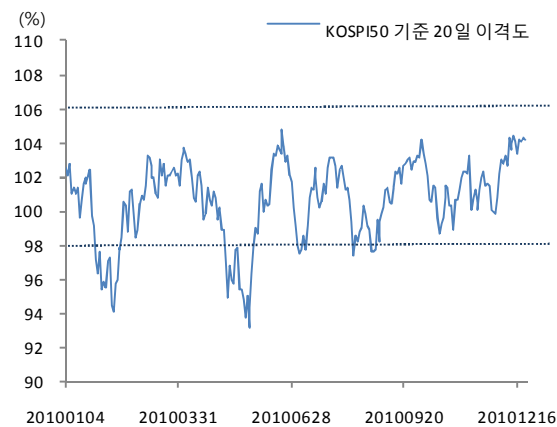
전일 코스피는 숨고르기 보임.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연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어 상승 동력은 여전. 하지만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부진. 코스피는 사상최고치 앞두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2007년 고점 기준으로 아직 60% 가량밖에 회복하지 못한 상황. 중소형주 부진은 미국 등 해외 증시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게다가 실적 측면에서 내년 중소형주의 이익전망치 개선되고 있어 펀더멘털 상 모멘텀도 있음. 문제는 수급인데 중소형주 수급 개선 가능성은 2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중소형주 반등의 2가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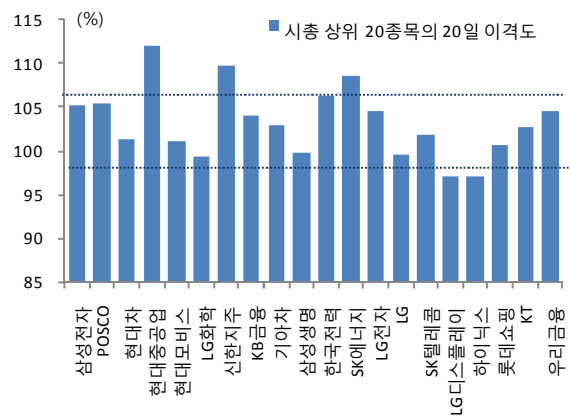
1. 대형주, 과열 신호 있나?

우선 대형주의 과열 여부에 관심. 대형주의 과열 감지된다면 중소형 주로도 매기 확산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과열권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 KOSPI50 기준 20일 이격도가 104.19%로 과열권인 106% 도달하지 않았음. 시가총액 20개 종목 기준으로 봐도 4종목만이 과열권에 있는 상황. 오히려 일부 종목의 경우 최근 업종간 순환매 일어나며 과열이 해소되고 있음. 이는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 지속된다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미

[그림 1] 코스피 대형주 아직 과열 아님



[그림 2]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기술적 과열 보이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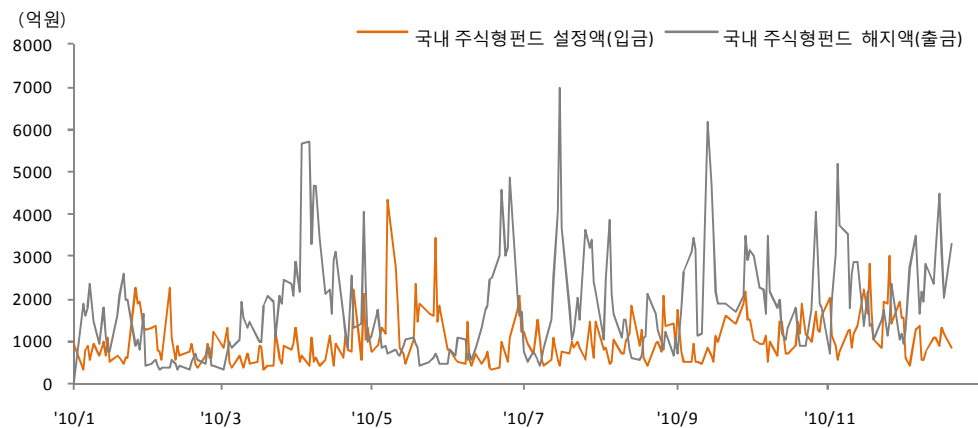
자료: 한국증권전산,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2. 펀드 자금 유입되나?

중소형주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수급 측면에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함. 2000년 이후 4차례의 강세장 (2001.9~2002.4, 2004.8~2006.1, 2006.6~2007.10)과 달리 현재 중소형주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기관 매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기관 자금 중 연기금의 경우 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한다는 점에서 투신권 자금 유입 여부가 중요. 펀드로 자금유입세 관찰되면 투신권의 중소형주 매수 여력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임.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 순유출입액을 보면 2000선 돌파 이후 아직 추세적 변화 없음. 중요한 점은 신규자금의 유입 여부인데, 연초 이후 펀드 자금의 설정액을 보면 지난 5월 유럽위기 당시와 11월말 북한 리스크 등 위기 상황에서만 저가 매수세 강화되는 흐름 보임. 현재 랩어카운트 중심으로 유입되는 개인 자금이 펀드로도 확장되려면 현재 2000대 지수대에서의 안착과 상승 기대감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3] 펀드로의 유입자금 증가는 아직 관찰되지 않아



자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연말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

연말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00년 이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12월 성과를 봐도 대형주가 높은 성과를 보여왔음. 연말 기관의 윈도우드레싱과 프로그램 매수 유입 증가가 주요 원인. 당분간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듯. 최근 업종별 순환매 속도가 빨라져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업종 내 대형주 중심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자산운용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과거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